

# 양계업종조합 정상화 가능성은 없는가?

◇ 정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 1. 경영개선 및 사업정지 배경

농림부는 지난 3월 26일 전북양계조합과 충북양계조합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4월 16일에는 서울경기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에 대해 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지하는 등 양계업종조합의 부실에 따른 과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일 업종조합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오던 조합들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관련 조합원 및 양계 관련인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앞으로 일어날 과장과 양계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결정은 농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농

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관리 위원회가 이들 조합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그 동안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과다하여 자체 경영 정상화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합병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최근의 양계업 불황이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양계조합은 경영진단 결과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실액이 306억원으로 순자본 잠식비율이 63.6%로 적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양계조합은 부실액 106억원에 순자본 잠식비율이 34.5%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도 당기 순이익도 전북양계조합이 -45억원, 충북양계조합이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의 사업 정지기간은 6개월간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계약이전 절차를 통해 이들 조합의 신용사업이 인근 조합으로 이전되어 예상처럼 큰 동요는 없었다.

한편 조합부실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지를 받은 서울경기양계조합은 지난해말 현재 부실액이 176억원으로 총자산에 대한 순 자



▲ 지난 1993년 12월 가칭 충북양계 협동조합으로 출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등을 밝혀온 충북양계조합(발기인 대회 장면)

## 양계조합 경영개선 명령, 업무정지 사태

본비율이 -10.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합들도 부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양계축협은 지난 1978년 5월 설립되어 집하장 설립 등 신용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전북양계조합은 지난 1988년 8월 전북양계축산협동조합으로 태어났고, 충북양계조합도 지난 1993년 12월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태어나면서 지역 전문양계축협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 몫을 해왔다.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인근의 타 조합들과 합병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계와 연계된 사업(식품공장, 비료공장, 계란집하장)이 업계의 불황과 겹치면서 경영부실에 따른 적자경영을 헤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전문양계조합으로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칫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비운에 휩싸였다.

### 2. 정상화 방안 모색 움직임

사업정지 이후 관련 조합원들은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 전북양계조합 조합원들은 전북양계영농법인을 창립하고 새로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6일 창립총회 장면)

일부 사업은 타 업체들로부터 인수작업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계사업에 주력해온 충북조합은 파산절차만 기다리는 처지로 아무런 정상화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육계농가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열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조합을 통해 계열업체들로부터의 불이익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으나 조합의 영업정지 이후 직접 계열업체들과의 힘겨운 계약거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부분 육계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그 동안 출자했던 돈을 못 받을 형편에 놓여 있어, 조합농가들은 불황속의 육계산업과 함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은 인근 지리산 낙협에서 인수하여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식품공장은 인근 도계장인 우림인터에서 인수하여 큰 무리없이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북조합의 고유브랜드인 '계림마을' 까지 이 업체에서 인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문제는 1일 30만개씩 계란을 처리해 왔던 집하장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농장에 계란이 체화되는 등 계란유통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다행히 최근들면서 일반 상인을 통해 겨우 처리는 되고 있으나 덤프 등에 의해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란 힘든 상황이며 전국의 계란시장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채란양계조합원들은 사업정지 이후 사료공급 정상화 및 계란집하장 존속 필요성에 대해 농림부 장관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1일은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 및 생산농가들이 농림부가 위치한 과천 종합청사에서 시위를 하는 등 조합의 회생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달 16일 양계영농법인(법인대표 박광식)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계란집하사업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으나, 그 처리 물량은 사업정지 이전에 비해 30%선에도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계란집하사업은 조합 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기로 하였다.

서울경기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대구 경북양계조합은 5월 10일까지 개선명령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8월 31일까지 구조개선

추진, 조합원출자금의 감액, 동종조합과의 합병, 인력감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양계조합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오던 양계조합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데 대해서는 양계산업에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란 집하사업 등 양계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오던 조합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운 유통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다. 새로운 영농법인을 조직하는 등 자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농협에서도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정상화 방안 모색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

### 음수소독 살균소독 세척소독 악취 및 해충란 제거

# 차스트-X

#### ● 놀라운 음수소독 효과

- 유효성분이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효과가 우수해 음수소독시설사병, 만성호흡기질병의 예방은 물론 적절한 사용의 경우 치유효과가 있으며, 사료효율의 증대와 가스억제, 항생제사용 절감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 안전성 공인

- 충북대 동물의학연구소, EPA, FDA, USDA 안전성 등록



(주)한성바이오켐

본사 문의전화 : (043) 532-0700

홈페이지 : [www.hsdrq.co.kr](http://www.hsdrq.co.kr)

#### ●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균력

-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미 ONYX 미생물연구소 등

#### ● 강력한 침투력과 세척력

- EPA 5% 혈청테스트 통과, 음수라인 냄새 막힘 해결

#### ● 경수내구성과 지속효과

- CaCO<sub>3</sub> 750ppm 이상 효과적, 안정화된 알킬배지 화학구조

#### ● 악취 및 해충의 유충란 제거

- 탈취효과 및 악취원인균 살멸 유충란 살충효과